

## 포장분야 중요성 인식, 현업에 활용

변해경 / KT&G 여수지점 과장

(사)한국포장협회가 올해 3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KT&G 여수지점 변해경 과장이 57명 수료자 가운데, 93.2점(100점 만점)을 획득, 우수한 성적으로 1등으로 수료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끝까지 이수하고 보니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딸 선미와 기한내에 우편물을 보내주는 역할을 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해경 과장은 현재 국내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G에서 영업 및 마케팅관리, 유통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생산성본부(KPC) 물류관리사 양성, 경영혁신실천, 사원능력개발과정 강사, (주)크레듀 마케팅입문과정 강사, 순천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물류관리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세무회계 등 자격을 취득, 꾸준한 자기계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평소 영업, 마케팅, 물류유통, 경영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변 과장은 우연한 기회에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접하게 됐다



고 전한다.

그는 각 볼륨별로 진행되는 리포트에 대한 Feed Back을 통하여 학습을 컨트롤하는 과정과 집합교육이 있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표했다. 이 외에도 협회 사이트 자료실, 게시판 등을 활용해 실시간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생동감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해경 과장은 현업에서 제조담배 배송 합리화가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많은 고민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천 청암대학 물류패키징과 출강을 통해 학생들이 포장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를 제고, 산업 및 기업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

“포장은 상품을 보호하는 옷이자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얼굴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그는 포장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포장기술관리사통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 포장인력 양성 이바지 하고 싶어

원성인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지난 11주 간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스쳐지나가며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수료한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인데, 우수수료자로 선정되어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 92.2점을 획득, 우수수료자로 선정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원성인 학생은 현재는 군 휴학 후, (주)프루웰(구 삼양관지공업)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각종 골판지 상자를 생산·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학교 선배가 제8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금번 교육을 받게된 원성인 학생.

그는 처음 1, 2주차의 경우 레포트 작성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매 주가 거듭되어 갈수록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주차 과제를 하면서, 자필 부분을 작성하면서 예쁘게 써 보고 싶어서 A4 용지 밑에 줄을 그어 두고 쓰면서 구겨버리고, 또 버리고,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100장 정도는 우습게 구겨 버리는 시나

리오 작가 쯤 되려나요. 전 100장 쯤은 아니지만 10장 정도는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는 금번 9기 수료식이 취소된 것과 관련,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의 수료식은 꼭 개최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원성인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자격 획득을 계기로 학교로 복학 후 더 많이 공부하여, 타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국내 포장인력 양성에 이바지 할 포부를 갖고 있다.

“국내에 포장관련 학과가 설립된 4년제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가 유일할 정도로 국내의 포장관련 인력 양성은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포장산업을 주도해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를 비롯한 많은 포장관련 학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부탁한다는 원성인 씨.

그는 포장학도라는 자부심으로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

# 기능성 및 친환경 포장인재될 터

김진호 /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김진호 학생이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91.9점을 획득, 우수수료자로 선정됐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은 부족한 제가 제9기 포장기술관리사를 좋은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진호 씨는 “좋은 성적으로 수료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주신 전공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함께 했던 패키징학우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재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4학년 재학 중인 그는 지난 4년 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전반적인 포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통신교육 11주 동안 학교 수업내용과 더불어 방대한 통신교육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이번 과정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열정을 다해 노력한다면 모든 일에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질적, 신뢰적인 보완을 통해 다른 기타 자격증과 같은 명실상부한 포장자격증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포장관련 업계와 관련 단체들이 국내 대학 포장학과와 인재육성 및 제품개발 아이디어 공모

및 인턴쉽 프로그램과 같은 긴밀한 인적 및 지식 협력을 기반으로 한 ‘B2U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포장관련업체와 기관, 학부생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의 포장산업을 이끌어 갈 학부생들이 포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진취적인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호 씨는 앞으로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우수수료자라는 자부감을 바탕으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기능성 및 친환경 포장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조적이고 뛰어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포장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김진호 씨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